



045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회관

www.unesco.or.kr
02-6958-4100
online@unesco.or.kr

20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03 「유네스코 헌장」 전문(前文)
- 06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 10 유네스코
- 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요 사업
- 28 홍보 활동 및 홍보대사
- 30 한국의 유네스코 관련 등재 및 주요 네트워크
- 32 유네스코와 한국
- 3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설 소개
- 3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유네스코 헌장」 전문(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 관용의 광장에는 「유네스코 헌장」 전문(前文) 일부가 10개 언어로 새겨져 있다.

유네스코 가입 70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



시험

1) 다음 각 문의 옳고 그름을 서술하시라
문()
文()
加文()

2) 다음을 곱하시라
$$\begin{array}{r} 222 \\ + 326 \\ \hline \end{array}$$

$$\begin{array}{r} 741 \\ \times 2 \\ \hline \end{array}$$

제1차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활동 모습(1954)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352명의 대학생이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도 연천, 화천, 양평 등 수북지구와 서울 교외 지역을 방문해 아동교육, 의료, 영농지도,
건설 활동에 참여하면서 유네스코 모범촌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의미와 여정

2020년은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작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관계 기관과 함께 더 많은 국민에게 이 기념비적인 한 해를 알릴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힘든 상황이지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축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가입 후 11일 만에 전쟁이 발발한 신생 회원국을 위해 유네스코는 초등학교 교과서 인쇄공장 건립, 교육/과학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주었고, 이후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대한민국은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이바지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최일선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50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195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및 교과서 인쇄공장 건립



1961
외화 없이 책 구입, 유네스코 쿠폰 사업



1967
'명동시대' 연 유네스코회관 건립



1970
평생교육의 개념 자리 잡기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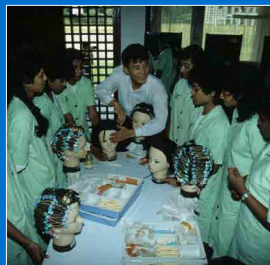
1977
유네스코 청년원 개원 및 다양한 청년 활동



1982
환경문제에 관한 첫 관심,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990
희망을 '수출'하는 첫 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립



1995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첫 등재



1997
다문화 사회 방향 제시한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



1997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



2000
상호 이해의 다리,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2009
지속가능발전 뿌리내리기 위한 ESD한국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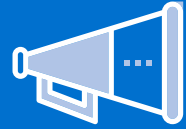
2013
60주년 맞이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2015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자발적 기여 업무협약 체결



2020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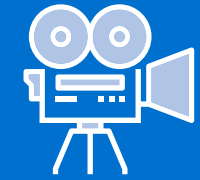
온라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 한 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 70주년 웹페이지 구축, 70주년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가 함께 해 온 70년을 알리고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사명을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카드뉴스, 언론 홍보,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해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분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집중합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전시

유네스코라는 국제무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활동 및 국내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진 유네스코 활동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물과 사료를 통해 돌아보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전시는 7월부터 두 달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청소년 영상 온라인 공모전

'청년 세대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청소년의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학교를 비롯한 전국 초·중·고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이 확산되고 유네스코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 다큐멘터리 및 TV 프로그램

유네스코와 한국의 지난 70주년을 심도있게 다루는 특별 다큐멘터리와 '열린음악회', 역사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등을 통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에게 친숙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통해 유네스코 활동이 우리 일상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 개최

올해 처음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 대표회의와 청년포럼이 10월 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범람하는 정보 속 미디어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허위정보와 혐오발언에 선동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 세계대전 후, 인류가 이런 참혹한 전쟁을 또 다시 겪지 않도록 지구상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의 사명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창설	1945년 11월 16일(「유네스코 헌장」 채택일)
소재지	프랑스 파리
기능과 역할	<p>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 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Laboratory of Ideas)</p> <p>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Standard-Setter)</p> <p>지식 정보의 수집과 보급(Clearing House)</p> <p>회원국들의 역량 강화(Capacity-BUILDER)</p> <p>국제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Catalyst for Cooperation)</p>
회원국	193개 정회원국 및 11개 준회원국(2020년 4월 기준)



총회는 모든 정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 매 2년마다 개최됩니다. 총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및 예산안, 그리고 관련 주요 의제들을 심의·의결합니다. 아울러 유네스코를 이끌 사무총장, 집행이사국, 정부간위원회 이사국을 선출합니다.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언어입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하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은 대외적으로 유네스코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업 결과를 총회와 집행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현재 사무총장은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 출신인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이며, 11번째 사무총장입니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6개 지역별 그룹의 58개국 대표로 구성된 의결 및 집행감독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첫 집행이사국 선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 중에 있으며, 2017-2109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집행이사국은 다음과 같이 지역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 | | |
|------------------|--------------------|
| 1그룹(서유럽·북미): 9개국 | 2그룹(동유럽): 7개국 |
| 3그룹(중남미): 10개국 | 4그룹(아시아·태평양): 12개국 |
| 5그룹(아프리카): 13개국 | 6그룹(중동): 7개국 |



국가위원회는 유엔 기구 중 유네스코에만 있는 제도로서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정부 및 유관기관 대표,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되어, 각 회원국 내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99개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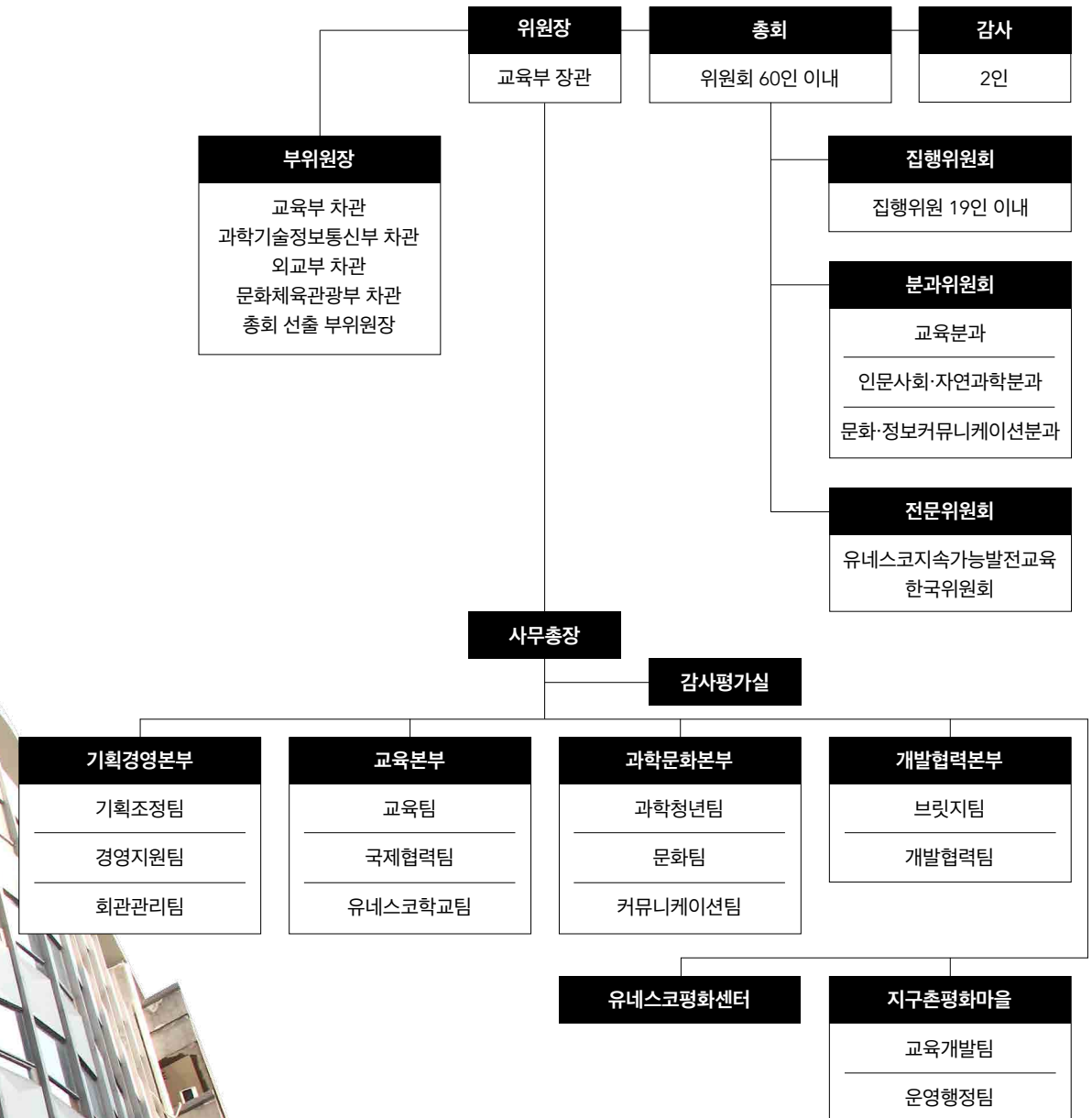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북한은 1974년에 133번째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벌어진 6·25 전쟁 중에도 정부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했고, 마침내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유네스코, 대한민국 정부, 국내외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립	1954년 1월 30일
소재지	서울 명동
설립근거	「유네스코 헌장」 제7조(국가위원회 설립 요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목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
기능과 역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진작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정책 수립,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사, 심의와 건의 유네스코 총회 의안 작성,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건의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 이행에 관한 심의와 건의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및 사업 수행 조정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교육부 장관) 1인, 부위원장(4개 부처 차관 및 총회 선출 1인) 5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감독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2인의 비상임 감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양한 국내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제 포럼
2019. 4. 18. thu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인 흐름 및
메뉴가와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증대

Session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보고서

International
forum
on Cultural
Diversity
MMCA Seoul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에
문화 통합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교육 2030

유네스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 이행 선도기관이며, 교육 2030 국내 이행 및 글로벌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SDG 4-교육 2030(이하 '교육 203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무총괄기관으로서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 2030 국내 협의체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육 이슈에 관한 연구 및 출판,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2030 운영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전 세계적인 교육 의제 논의와 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SD를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관련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9년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사업을 통해 국내 다양한 분야의 ESD 실천 사례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인 GAP(2015-2019)에 이어 '2030년을 위한 ESD'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ESD와 함께 SDG 4의 세부목표(4.7)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평생학습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설립한 전 세계 도시 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 2030 이행과 평생학습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ASPnet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1953년부터 정의와 인권, 국제이해와 평화를 위한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유네스코학교 지역협의회, 교사학습공동체, 한일교사대화, 학교 간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유네스코학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2개국 15,000여 개 학교가 ASPnet에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1961년에 4개 교가 가입한 이래 꾸준히 늘어 2020년 5월 현재 608개 학교가 국내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학교 홈페이지: <http://asp.unesco.or.kr>



- ① 제3회 SDG4-교육 2030 포럼 및 학습도시와 SDGs 포럼
- ② 2019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 ③ 2019 한일교사대화 중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모습

유네스코 국제/정부간 과학사업

유네스코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국제/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물(HP, 정부간수문학사업), 생물다양성(MAB, 인간과 생물권 사업), 해양(IOC,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지구과학(GGP, 국제지구과학지질공원사업) 분야의 정부간위원회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사업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면서 유네스코 사업의 추진을 돕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MAB 청년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국가 간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재정 기여를 해왔고, 네트워크 총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훈련 워크숍,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AB 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라는 주제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이 이웃 국가 간의 평화,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이 승인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주도와 함께 2019년부터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센터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EABRN 회원국: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 ① 2019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 ② 2019 유네스코 평화누리 세계 청년의 날 캠페인



한국의 과학 분야 유네스코 활동 기록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유네스코 활동, 특히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2000년대 이전에 활동해 온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유네스코가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면서 개인의 기억을 넘어 공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고 그간의 활동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유네스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측면을 성찰하고자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와 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를 설치하여 국제규범을 만들고 논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활동에 국내 전문가와 기관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윤리원칙 선언'(2017)과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2017 개정) 등 유네스코 규범을 국내에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윤리, 인권 측면에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AI 윤리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AI 윤리 국제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I 윤리에 대한 국내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변동관리

유네스코는 세계화, 이주, 도시 난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변동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분단 상황 속에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포용담론으로서 '한반도 세계시민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2019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및 역량 강화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2018년 청년의 사회참여와 권익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청년20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청년2030 전략'의 5대 우선 과제 중심으로 한국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우수 활동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및 동아시아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세계시민 의식 증진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세계유산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이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은 유산의 등재와 보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산 관련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공유를 돕고, 나아가 세계유산위원회 참여를 통해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사라지기 쉬운 무형의 유산을 보호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키고,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은 물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이 관련 정부간회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제 분석과 필요한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 사회에서 기록유산이 중요하고 보호 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0년 이상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록유산 등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등재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세계기록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을 시작하여 기록유산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정보 제공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소개자료를 번역하여 통합 DB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가 제공하는 유산 세계지도를 번역 및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유네스코 지정 유산을 소개하는 온라인 지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유산 보호 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



① 2019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② 2019 라오스 공예디자인 워크숍
 ③ 2019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한국적 맥락에 맞는 이해와 적용을 위한 국내 차원의 담론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자료의 출판, 콜로кви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국가의 협약 비준율 향상과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예디자인 국제교류협력사업

도예전통의 단절이 우려되던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도예 장인과 예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소재와 제작방식에 현대적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지역의 도자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도자 제작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 네트워크 협력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문화 분야 국제사회 의제 분석 및 활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본부 및 지역사무소, 문화 분야 카테고리 2기관,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상시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과 유네스코 지정 유산 및 문화다양성 관련 국내외 활동 진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도 지역별 유네스코 지정 유산 및 창의도시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국내 도시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운영, 연 1-2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가입 도시 및 가입 준비 도시 간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함양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급변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허위정보뉴스와 혐오표현에 휩쓸리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21세기 모두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국내 MIL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 글로벌 MIL 주간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의 개최는 물론이고, 유네스코가 발간한 핸드북 '저널리즘,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한국어로 번역·출판할 예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참여

유네스코는 모두가 정보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2000년부터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FAP 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2019-2023년 임기) 전 세계 모두가 양질의 정보에 동일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 네트워크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들과 협력하여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진흥, 인터넷 보편성 증진 등에 관한 국내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이슈 및 국제 논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 기관에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언어다양성 증진

유네스코는 인류가 가진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라져가는 모어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1일을 세계 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언어'의 다양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모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세계 모어의 날 행사 및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국제학술포럼 개최 협력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①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컨퍼런스
② 2019 세계 토착어의 해 기념 행사

유네스코 정책 자문 및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내 주요 정책 회의 및 정부간위원회 참여를 통해 정부와 주요 관련 기관에 정책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 및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학계 및 시민사회에 전파하는 등 국내 유네스코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 및 국내외 정보 공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 간 교류와 협력은 전 세계 유네스코 활동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954년 창립하여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중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위원회 지역회의 개최 및 국가위원회 간 직원 교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위원회 간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관리

자발적 기여란 유네스코 회원국이 매년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정규 분담금 외에 유네스코의 비정규예산에 기여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규모 상위 회원국으로서, 정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공여 주체들이 유네스코의 활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발적 기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검토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한국의 대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부문 가시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내 자발적 기여 사업 웹사이트 관리 및 정기적인 국내 공여주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기관 간 교류 촉진 및 정보 공유 등 한국의 대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 협력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 사무소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 유네스코 유니트윈 및 유네스코 석좌는 유네스코의 가치와 사업을 널리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네스코의 자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 4개의 유니트윈 대학교, 5개의 유네스코 석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각 네트워크가 유네스코의 이념과 사명을 실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2019 동아시아 국가위원회 회의
 ② 제206차 집행이사회 자발적 기여 행사(소녀교육 라운드테이블)
 ③ 2019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 네트워크 회의

브릿지 2단계 사업

브릿지 2단계 사업은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해 저개발국 내 교육소외계층에게 기초적인 읽기·쓰기 교육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및 SDG 4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브릿지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 삼아 수원국 중심의 5개년 사업으로 기획되는 브릿지 2단계 사업은 2020년 동티모르, 라오스 그리고 부탄에서 첫 사업이 개시되었고, 향후 아프리카, 아시아 최빈국 중심으로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단계 사업에서 사업 효과의 확장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머물지 않고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수원국 교육부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사업은 수원국의 교육 정책에 부합하여 국가 차원으로 영향이 미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유네스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 유네스코 외교에 기여하는 일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세계에서 글을 모르는 성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교육 소외자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문해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지역학습센터 구축·운영, 교사 연수, 교재 보급 등의 세부 사업을 통해 학교 없는 소외된 외곽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작된 동 사업은 수원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수원국 정부 및 지역 공동체에 사업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수원국 정부와 협력하여 전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말까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아시아 사업

브릿지 아시아 사업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시아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의 소외 지역에서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기초적인 읽기 쓰기 교육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사업에 더해,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한 국별 특별사업을 기획하여 브릿지 아시아 사업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국에서 브릿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 협력기관 활동가와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브릿지 협력기관 연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① 2019년에 개소한 보츠와나 마모타테 지역학습센터
- ② 2019 브릿지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 ③ 2019 유네스코 후원자의 밤



후원 사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빈곤과 차별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지구촌 이웃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의 교육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 후원모금 사업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을 실천하는 개인과 학교,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민이 모아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사람들을 위한 학습센터 건립 및 교육 체계 마련, 교사 역량 증진과 기초문해교육 제공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모집 및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 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뉴스 발간

『유네스코뉴스』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개발협력 분야의 사업 및 활동과 유네스코 관련 주요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월간 소식지로 1964년에 창간되었습니다. 매달 오프라인으로 9,000부, 온라인으로 7,000여 부가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에서 온라인 뉴스레터를 신청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및 e-book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학생기자단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원회 사업 및 행사의 홍보를 위한 신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진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대학생 기자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취재하며,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 및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위원회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를 통해 유네스코 관련 규범과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각종 사업과 간행물을 소개하고,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일반 대중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unesco.or.kr
 @unesco.or.kr
 blog.unesco.or.kr
 @unesco.or.kr
 @unesco.or.kr



이영애 특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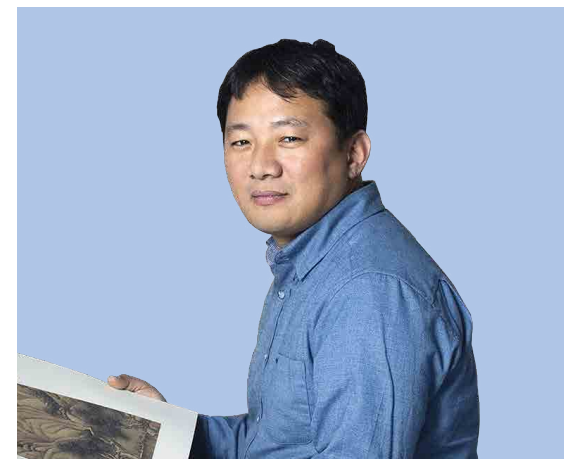
신세경 특별홍보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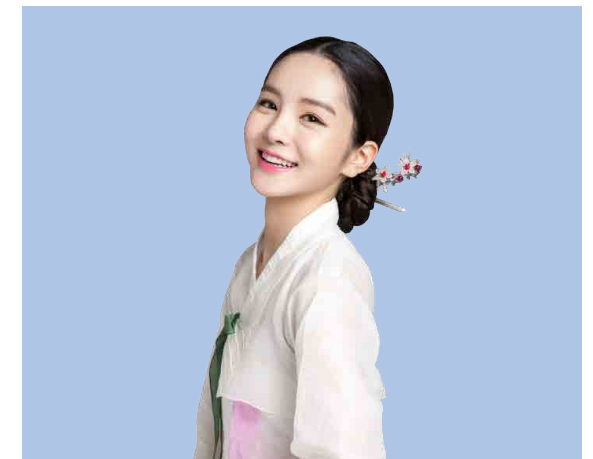
임형주 평화예술 친선대사



양방언 문화예술 홍보대사



이이남 문화예술 친선대사



송소희 홍보대사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합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전 전통이나 공연예술, 전통 지식이나 관습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세계 각국의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보존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1992년 시작된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통해 지정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은 1971년 설립된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상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더 나아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0월 '문화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형성된 도시 네트워크입니다.

- | | |
|----------------------------------|------------------------|
| 1 석굴암과 불국사(1995) | 11 남한산성(2014) |
| 2 해인사 장경판전(1995) | 12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
| 3 종묘(1995) | 1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 |
| 4 창덕궁(1997) | 14 한국의 서원(2019) |
| 5 화성(1997) | |
| 6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 |
| 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0) | |
| 8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 | |
| 9 조선 왕릉(2009) | |
|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 |
| 11 남한산성(2014) | |
| 12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 |
| 1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 | |
| 14 한국의 서원(2019) | |
| 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 |
| 2 판소리(2003) | |
| 3 강릉단오제(2005) | |
| 4 강강술래(2009) | |
| 5 남사당놀이(2009)* | |
| 6 영산재(2009)* | |
|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 |
| 8 차용무(2009) | |
| 9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2010)* | |
| 10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2010)* | |
| 11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2010)* | |
| 12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2011)* | |
| 13 줄타기(2011)* | |
| 14 한산 모시짜기(2011) | |
| 15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2012)* | |
| 16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 |
| 17 농악(2014)* | |
| 18 줄다리기(2015)* | |
| 19 제주해녀문화(2016) | |
| 20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201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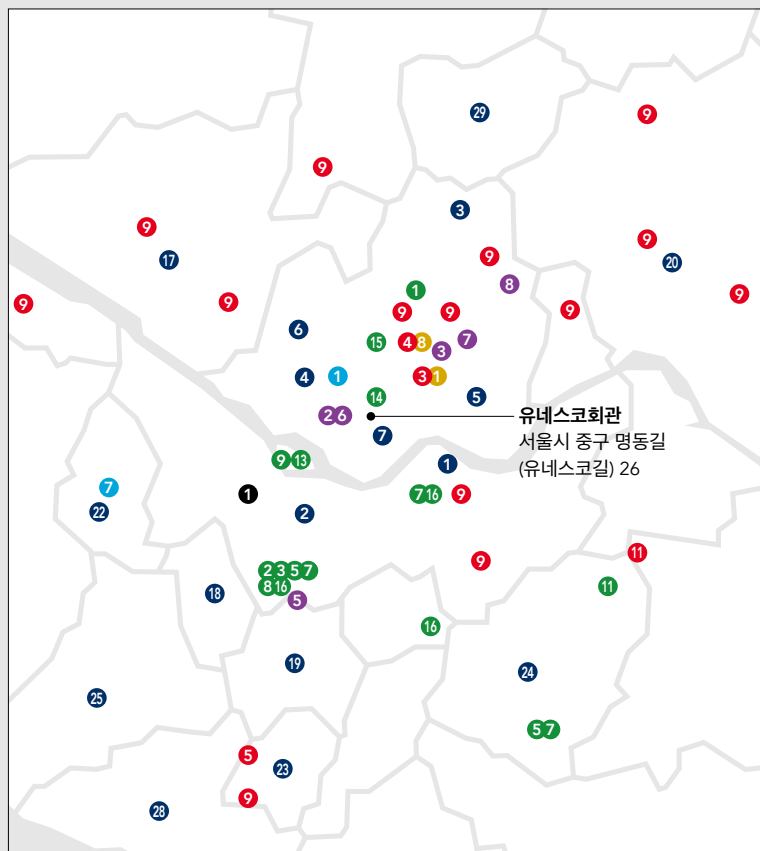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무형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옥산서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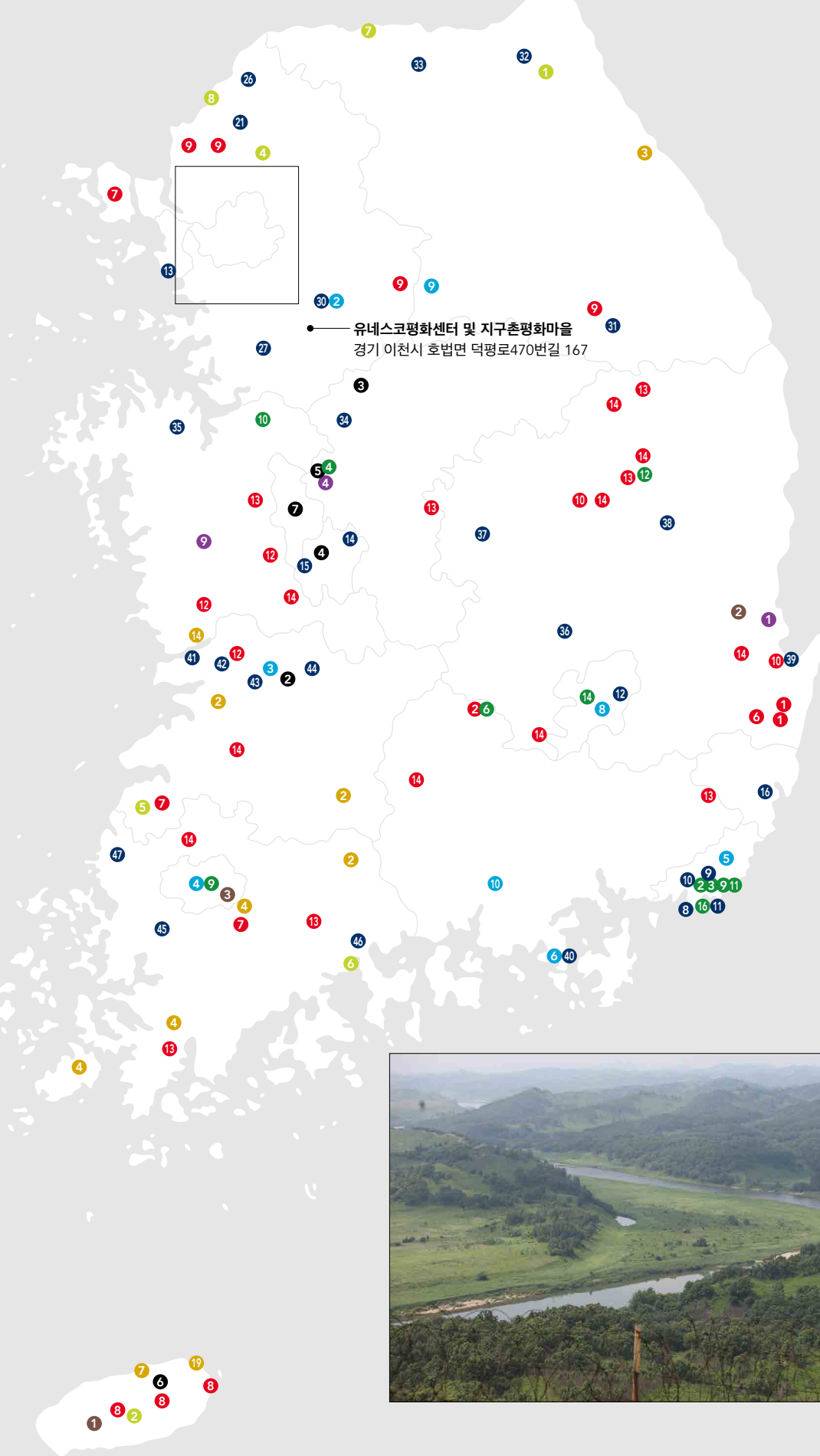


- | | |
|-----------------|--------------|
| 1 설악산(1982) | 1 제주도(2010) |
| 2 제주도(2002) | 2 청송(2017) |
| 3 신안 다도해(2009) | 3 무등산권(2018) |
| 4 광릉숲(2010) | |
| 5 고창(2013) | |
| 6 순천(2018) | |
| 7 강원 생태평화(2019) | |
| 8 연천 임진강(2019) |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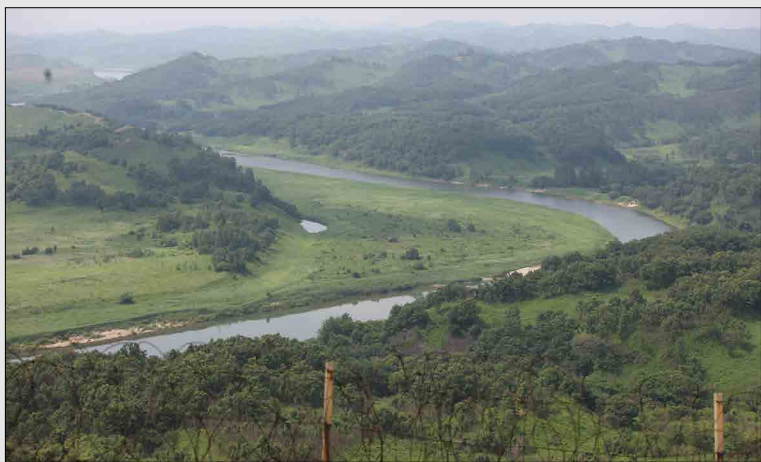


- | | |
|-----------------------|------------------------|
| 1 서울특별시(디자인, 2010) | 10 진주시(공예와 민속예술, 2019) |
| 2 이천시(공예와 민속예술, 2010) | |
| 3 전주시(음식, 2012) | |
| 4 광주광역시(미디어아트, 2014) | |
| 5 부산광역시(영화, 2014) | |
| 6 통영시(음악, 2015) | |
| 7 부천시(문학, 2017) | |
| 8 대구광역시(음악, 2017) | |
| 9 원주시(문학, 2019) | |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에 창설되었으며, SDG 4(양질의 교육)와 11(지속가능 도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전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사례공유, 정보 교환, 공공 프로젝트 기획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서울 | 1 강남구 | 2 관악구 | 3 도봉구 | 4 서대문구 | 5 성동구 | 6 은평구 | 7 용산구 | | | | | | | |
| 부산 | 8 사하구 | 9 연제구 | 10 사상구 | 11 서구 | | | | | | | | | | |
| 대구 | 12 수성구 | | | | | | | | | | | | | |
| 인천 | 13 연수구 | | | | | | | | | | | | | |
| 대전 | 14 대덕구 | 15 유성구 | | | | | | | | | | | | |
| 울산 | 16 남구 | | | | | | | | | | | | | |
| 경기도 | 17 고양시 | 18 광명시 | 19 군포시 | 20 남양주시 | 21 동두천시 | 22 부천시 | 23 수원시 | 24 성남시 | 25 시흥시 | 26 연천군 | 27 오산시 | 28 안산시 | 29 의정부시 | 30 이천시 |
| 강원도 | 31 영월군 | 32 인제군 | 33 화천군 | | | | | | | | | | | |
| 충청북도 | 34 진천군 | | | | | | | | | | | | | |
| 충청남도 | 35 당진시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36 구미시 | 37 상주시 | 38 안동시 | 39 포항시 | | | | | | | | | | |
| 경상남도 | 40 통영시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41 군산시 | 42 익산시 | 43 전주시 | 44 진안군 | | | | | | | | | | |
| 전라남도 | 45 나주시 | 46 순천시 | 47 영광군 | | | | | | | | | | | |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을 이행하고 연구하는 국제협력 기관입니다. 유네스코 총회 승인을 거쳐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의 협정을 통해 회원국이 직접 설립하는 국내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네스코 직할 조직인 카테고리1 기관과 구분됩니다. 카테고리2 기관은 설립 후 6년마다 평가를 거쳐 집행이사회 승인으로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관명	설립연도
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2000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2011
③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2016
④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2017
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2019

⑥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GCIDA)*
 ⑦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승인 후 설립 진행 중

유니트원과 유네스코 석좌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유네스코 이상 실현을 위해 1991년 제26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프로그램입니다.

- 유니트원**
- ①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역량강화(한동대학교, 2007)
 - ② ICT 및 리더십을 통한 여성역량강화(숙명여자대학교, 2015)
 - ③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경험 및 지식 공유(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 ④ 양질의 교사교육(한국교원대학교, 2019)

- 유네스코석좌**
- ⑤ 철학과 민주주의(서울대학교, 1997)
 - ⑥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숙명여자대학교, 1998)
 - ⑦ 미래문명,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연구 교류, 회의, 교육 프로젝트(경희대학교, 2011)
 - ⑧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2)
 - ⑨ 아시아태평양 문화재 보전 및 복원 역량강화(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7)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1953년부터 평화와 인권, 문화간 이해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정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추진해온 전 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학교별	지역별
초등학교	164개교
중학교	119개교
고등학교	211개교
특수학교	10개교
대학교	4개교
전체	608개교
충청남도	29개교
충청북도	45개교
세종특별자치시	12개교
광주광역시	8개교
전라남도	33개교
전라북도	24개교
제주도	20개교
대구광역시	19개교
경상남도	44개교
경상북도	34개교
부산광역시	18개교
울산광역시	18개교
전국	608개교

유네스코와 한국

한국이 진출한 유네스코 기구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산하 다양한 분야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2019-2023
법률위원회	2019-2021
국제 수문학사업(IHP)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2017-202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정부간위원회 위원국(2021년 의장국)	2017-2021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GCPE) 위원회 위원	2017-2020
인간과 생물권사업 국제조정이사회(MAB-ICC) 이사국	2019-2023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이사국	2019-2023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이사국	2019-2021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외방수단에관한협약 부속위원회 위원국	2017-2021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위원국	2017-2021
모두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위원회 이사국	2019-2023

한국이 지원하는 유네스코 국제상

유네스코 국제상은 인류의 도덕과 지적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1989 제정
유네스코 직지사	2004 제정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유네스코 상주대표부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정부와 유네스코 간 효율적 업무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	1978년(2010년 재설치)
홈페이지	http://unesco.mofa.go.kr
이메일	dl.coree-rep@unesco-delegations.org
주소	33 Avenue du Maine, 75015 Paris, Fra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설 소개



1967년 서울 명동에 건립된 **유네스코회관**은 국내 유네스코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네스코회관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와 임대시설 등이 있으며, 건물 옥상인 12층에는 생태공원 '작은누리'와 '배롱나무 카페'가 있습니다.



1977년 유네스코청년원으로 개원한 **유네스코평화센터**는 국제청년야영, 한국 청소년 활동 지도자 연수, 청년해외봉사단 등 다양한 국내외 청소년 활동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학생,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기업,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평화와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평화센터 홈페이지: upc.unesco.or.kr





유네스코평화센터 내 자리 잡고 있는 **지구촌평화마을**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체험 영어교육과 접목해 확산합니다. 지구촌평화마을은 어린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을 가진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구촌평화마을 홈페이지: gpv.unesco.or.k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빈곤 퇴치

 지구상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한다.


2 기아 종식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대의 모든 이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5 성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가 깨끗한 물과 위생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7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모두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도시 및 인간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든다.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을 보장한다.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를 취한다.

14 수생태계 보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대양·바다·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15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는다.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모두가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세상 모든
 어린이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교육만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글을 알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기술을 배우면 일이 생기고 책을 읽으면 꿈이 생기니까요.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안내

전화 1800-9971

홈페이지 <http://peace.unesco.or.kr>

일시후원 무통장입금(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민은행 375301-04-10654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프리카·아시아 브릿지 프로그램”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학습센터를 지어줍니다.



선생님을 파견하여 글을 읽고 쓰고 기술을 익혀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에 필요한 책과 학습기자재를 지원합니다.